

“어느 대학에 다닌다”며 자랑하던 시대는 갔죠. 이제는 ‘어느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온 겁니다. 한국에서 더 이상 ‘명문대 배지’ 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본 좋은 사례들이 있다. 고려대 경영대. 명지대 건축학과, 이화여대 국제학부는 이제 알만한 사람은 알아주는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들은 매년 최고의 입학 경쟁률과 졸업자 취업에서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며 향진의 소문이 거품을 아남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이곳 졸업

포커스 국내대학 3곳 ‘특성화 성공’ 전략은

생들은 지난 몇 년 사이 기업의 현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가치 있는 변화를 남들보다 먼저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론 변화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반발과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멋지게 이겨냈다. 이들은 또 후발 주자와 확실한 차별화를 유지하는 데도 성공했다. 지난 2001년 국내 처음으로 국제학부를 도입한 이화여대는 지금은 국내에 국제학부를 운영하는 대학이 9개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최초’이자 ‘최고’로 통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 풍토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차별화에 성공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산업화 과정에서 정해진 획일화된 대학 서열에 수십년째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그런 면에서 이들의 성공 스토리는 더욱 호소력 있게 들린다.

명문대 간판보다 ‘전공’... 한 발 앞선 변화 통했다



교수진 서울대·延大보다 거의 2배 규모
최고대학 싱가포르·홍콩 추월이 목표

경영대 10여년 전 우리 사회가 IMF 위기로 치닫고 있을 때 고려대 경영대에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학장을 중심으로 ‘변해야 발전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내 최초로 영어강의를 시작하고 1994년부터 국내 최초로 해외 인턴십 파견을 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한 지 10여년. 개혁의 결과, 고려대는 2007년 국내 최초로 세계 최고 권위의 경영교육 인증인 EQUIS를 획득하는 등 외·내형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했다. 한 임시의학원의 2007학년도 정시합격자 수능 평균에서는 서울대와 연세대를 누르고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고려대 경영대의 강점은 교수진으로부터 나온다. 숫자만 비교해 봐도 우위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서울대와 연세대가 각각 40여명, 50여명인 것에 비하면 고려대 경영대는 두 배에 달하는 80여명의 교수를 보유하고 있다. 고려대는 향후 교수진의 규모를 130여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교수들의 연구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신입교수들은 3년간 입학시험 관리를 제외한 모든 행정에서 제외되고 4년간 조건 없는 연구비가 지원이 이뤄진다. 뛰어난 연구를 발표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월급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다는”는 낭만이 이곳에서는 현실로 나타난다.

개혁에는 물론 저항이 있었다. 장학생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내부문화를 깨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교 출신의 교수가 50%에 불과해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했기에 개혁에 대한 저항이 없었다고 한다.

국내 유수 대학의 경영대들이 고려대 경영대를 따라잡기 위해 대단한 정성을 기울이는 현상에 대해 장 학생은 의외로 무덤덤했다. 대신 장 학생은 “우리가 경쟁해야 할 곳은 좁은 이 땅이 아니라 세계”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미국 하버드 경영대나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를 같은 유명 MBA 스쿨을 단순히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장 학생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는 현 시점이 호기”라고 말했다. 아시아와 한국 경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려대가 하버드 경영대학원보다 훨씬 현실성 있는 해답을 내놓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 고려대 경영대는 잘하는 분야에 핵심 역량을 집중시켜 왔다. 아시아에서 최고로 평가받는 싱가포르 국립대의 경영대학원이나 홍콩 과학기술대학을 따라잡는 것이 목표다.

수능·내신 탈피 해외성적표 위주로 선발
매킨지등 국내의 일류기업에 잇단 진출

국제학부 이화여대 국제학부는 현실적인 신입생 선발 방식과 차별화된 커리큘럼, 다양한 과외활동 등으로 ‘존비핀’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한 명도 지원하지 않던 특목고 출신 고교생들이 2년 전부터 대거 지원하고 있는 점도 그간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한다. 지난 1월 이 대학 4학년인 최유선(21) 씨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최연소 발표자로 뽑히면서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아시아인으로는 유일한 발표자였던 최씨는 영국의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 등 세계적인 정치, 경제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히 ‘세계교육기금’ 마련을 공식 제안해 화제를 낳았다.

이화여대 국제학부는 졸업생의 취업률보다는 취업의 ‘내용’을 강조한다. 실제로 이곳은 첫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계 최고의 컨설팅사인 매킨지에 잇달아 졸업생을 취업시켰으며 삼성전자, HSBC 등 국내외 일류기업에도 다수 진출하고 있다.

국제학부의 커리큘럼을 고안하고 설립과정을 주도했던 김은미 교수는 “졸업생 중에는 경영이 치열한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 합격한 학생도 있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도 여러 명이 인턴십 과정을 밟고 있다”면서 “다만 일기 위주의 시험으로만 뽑는 고시제도로 인해 외교공무원에는 한 명도 진출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뽑을 때부터 ‘필수부문’ 재원을 뽑는다. 우선, 수능성적을 보지 않는다. 한국식 ‘달린 교육에 저질지 않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이다. 내신성적을 비중 있게 보지만 이때도 한국에서의 최종 내신보다 해외에서 받은 성적표를 우선시한다. 입시 경쟁률은 지난해 15대1에 달했다.

이곳의 세부전공은 국제무역, 국제비즈니스, 국제개발협력, 외교보안 등으로 구성돼 국제적인 감각과 열정을 키우는 데 최적화됐다. 개인취의의 평가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교수 13명 중 5명이 외국인이다. 김 교수는 “재학생 중 90% 이상이 1년 이상 해외 체류 경험이 있다”면서 그러나 “순수 토종인 경우 1년만 머물러면 문제점이 적을 것이고 있다”고 말했다.

철저한 실무중심 강의로 ‘네임밸류’ 극복
명지대학교 선진국대학과 교류확대...국제인력 배출

건축대 “건축학에서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무대에서 겨룬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명지대 건축대학이 건축학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존의 도식적인 건축공학 교육의 틀을 깨고 철저한 실무능력 중심의 교과과정으로 활용성 같은 ‘대학 네임밸류’의 벽을 뛰어넘어 세계 수준의 건축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명지대는 지난 2월 1일 한국 건축학교육인증원(KAAB)으로부터 서울대, 서울시립대와 함께 국내 처음으로 건축학위 과정에 대한 정식 교육인증서를 받았다. 이곳 졸업생들이 국제 수준의 교육을 받았음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명지대 건축대학은 이미 지난 2003년부터 3년 연속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선발하는 수도권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발돼 총 50여억원의 지원금을 받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개기는 혁신을 통한 명지대 건축학과 특유의 철저한 실무교육이 밑거름이 됐다.

소위 명문대학을 포함한 국내 건축대학들의 교육은 일제 시대부터 계속된 이론 중심 교육에 치중해 왔다. 명지대는 한 세기 가까이 계속된 관행에 ‘메스’를 가했다. 지난 2002년 국내 처음으로 공과대학에서 독립시켜 건축대학을 설립한 것. 인문학의 예술 분야를 접목해야 하는 건축학의 특성을 살리고 기존 공학 교육의 틀을 넘어설려는 시도였다.

대부분의 건축학과 교수들이 이런 업무를 겪지 않는 게 현실이지만 명지대는 설계면 도입시 사무소 운영 책임을 교수에게 맡겼다. 이에 대해 이 학교의 이준석 교수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우리 대학의 낮은 지명도로 인해 일을 게 없다는 인식이 아이러니하게도 변화를 받아들이기에 수월했다”고 말했다.

2002년 개원된 커리큘럼을 통해 배출된 올해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100%. 무엇보다 공고한 기준의 국내 대학 서열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교내 구성원들의 자신감은 혁신을 통해 얻은 가장 큰 무형의 재산이다.

고지희 기자/go@heraldm.com